

< 여기서 뛰어라! - 지금 이곳의 젊은 미술 >

6. 도시라는 공간을 질문하다

도시/서울을 바라보는 시선

'서울'이란 이정표는 단순히 지리적 장소, 특정한 공간을 지칭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서울이란 지명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포용한다. 서울은 대한민국, 그 자체다. 그런가 하면 서울은 거대한 공장 혹은 유기체다. 서울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상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체험과 사건의 거대한 덩어리이며, 600 여 년을 이어져 온 굴곡진 우리 역사의 다른 이름이다. 사실은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유기체의 역동성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추동한 동력이다. 동시에 기괴할 정도로 비대해지게 서울의 몸집을 늘려버린 원천이기도 하다. 서울은 남한의 중심도시다. 서울에만 1,200 만여 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인구는 남한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대한민국이 서울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은 너무 비대하고 복잡하고 끔찍하고 흉물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서울의 팽창은 남한 자본주의의 성장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편으로는 서울의 이 역동적인 힘은 그 안에 엄청난 불균등성을 은폐하고 있으며 수많은 난제를 잉태시켰다. 이제 우리는 도시가 주는 재앙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산다. 아스팔트에서 자라고 아스팔트에서 죽을 운명은 가혹하다. 우리는 도시가 뿜어내는 자본과 욕망, 소비와 향락의 공간 속에서 절여지다가 조금씩 소진해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울은 수많은 이미지, 기호들로 뒤덮여있다. 그 이미지들은 일종의 유토피아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그 유토피아는 동시에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에 다름 아니다. 이곳은 영속성보다는 일시성의 연속이다. 시각적 컨텍스트는 연속적인 전체가 아닌 다양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콜라주로 파악된다. 혼돈과 일시성, 전체성을 함축하는 관료적 도시모델(통일된 전체)에 의한 지속적인 파괴와 자본가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성에 의해 생성되는 비이성적이고 파편화 된 도시 비전이야말로 서울의 기원이다. 그리고 이 이중성은 도시의 시간과 장소 사이에 지속적인 틈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도시는 단일한 것인 동시에 다수적인 것이며, 현재라는 시제 속에 포함된 과거인 동시에 미래를 함축하고 있다. 서울에는 중심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이미지들과 볼거리들은 흘러 넘친다. 아울러 무수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지칠 줄 모르는 욕망과 소비와 증식이 자가 발전적으로 생성되어 간다. 규범도 질서도 취향도 없는 이 '정체성 불명'의 정체는 서울의 초상 같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사는 작가들은 서울이란 공간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다. 서울을 거닐며 이곳을 새삼 다시 본다.

도시를 어슬렁거리는 이들, 특히 이미지를 다루는 이들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무용한 사람일 것이다. 그들은 도시가 버린 스펙타클을 주워 모은다. 도시의 모습에서 자신의 욕망과 감각, 상실과 아픔을 본다. 자신의 상처를 만난다. 발터 벤야민의 말대로, 그들은 '녕마주'이다. 그러나 바로 그 녀마와 같은 것들 속에 무언가가 있다. 그것에 도시의 성질, 인간들의 본성, 우리의 시선 등이 어지러이 얽혀있다. 그렇게 얽힌 실타래를 사진, 그림으로 하나씩 풀어내고자 한다. 여기서 도시를 기록한 이미지는 다분히 다큐멘터리적이고 분석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들의 사진,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과 실제 몸으로 겪고 있는 서울 사이의 간극을 알고자 하는 욕구의 산물이다. 그들이 본 서울(나아가 한국의 모든 공간)의 초상, 그렇게 발견하고 체득하고 응시해서 재현한 이미지에 들어와 박힌 공간은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고 낯익은 공간을 새삼 낯설게 바라보게 한다. 그 거리 사이로 이상한 의문과 기이한 생경함이 서식한다. 다시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삶을 추동시키고 흡입해내는 공간을,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공간의 이면까지도 '다시 보게' 한다.

서울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60년대 공간들은 새롭게 재편되었고 그 속에는 질서와 혼란이 동시에 솟아나기 시작했다. 60, 70년대는 그런 시기였다.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하였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의 리듬에 맞춰 가정과 일터 사이를 순화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도시의 사람들은 노동을 위한 장소와 여가를 위한 장소를 따로 구분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그에 따라 공사 영역의 분리는 더욱 가시화 되었다. 점차 수직으로 뻗어 가는 서울 도시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공업화와 산업화의 목표를 향해 진행되는 일 방향의 가치 편성 속에서, 시골에서 서울로 달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빠르게 압축되는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였다. 당시 한국사회가 경험한 빠른 사회이동과 공간이동은 점차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시공간의 경험양식이 급속히 변함에 따라 더 빠른 속도감과 유동성 그리고 불확실성의 인과관계들이 맞물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낳게 되었다. 이것은 근대성의 또 다른 얼굴이다. 단기간에 위로부터 진행된 '압축된 근대화, 전 시대와의 단절을 추구하면서 상징적으로나마 역사의 연속성을 내보여야 했던 근대화, 서구를 발전 모델로 삼으면서도 민족주의를 추동력으로 삼아야 했던 근대화'가 바로 우리의 근대화이며 그 근대화의 자취, 상처가 고스란히 서울이라는 공간 이곳 저곳에 단호하고 처연하게 새겨져 있다. 그에 따라 생활세계는 식민지화되고 우리의 도시는 억압과 약육강식의 장치로 전락되었다. 바로 여기에 위로부터의 근대화, 외생적 근대화를 압축적으로 겪은 한국사회, 그리고 그 공간적 반영인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리에게 주체적인 근대화는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이다.

오늘의 서울을 생성해 낸 힘과 과정과 가치체계에 대한 점검과 반성 없이 그것을 극복하기는 힘들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 시대의 모습, 우리가 사는 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질문해 보는 일련의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 현재 서울이 미술, 사진의 소재, 주제로 떠오르고 아울러 전시기획의 대상으로 인식된 것 자체가 우리의 새로운 문화현상이다. 동시대 젊은 작가들,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은 이 서울을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되새김질해보려는 인문학적 상상력에 분주하다는 얘기가. 다시 말해 서울이라는 복잡다단한 역사적 공간에 대한 이해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를 통해 서울의 정치사회학을 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 사는 젊은이들의 내면성, 이 거대도시가 그들의 내면성에 가한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커다란 흐름을 형성한다.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에 자신의 내면성을 투사하거나 도시풍경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작가들이 그들이다. 이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탐색 작업의 일종이다. 사람들이 풍경을 어떻게 인식해왔으며 또한 어떻게 용도 변경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일이자 우리 도시 주변에 기생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축물과 자연 풍경들과의 배치를 통해 그 의미를 찾아보려는 노력 또한 이어진다. 많은 수의 작가들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황폐해 가는 풍경과, 기존 풍경을 대체하는 키치화 되고 시뮬라크르화한 풍경에 주목하여, 또한 그런 풍경에 걸맞은 이미지의 언어를 개발하고 있음도 목도된다. 이들에 의해 도시의 얼굴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풍경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방식이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진정한 풍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도시풍경은 전적으로 인위적인 구성이기에 더욱 그렇다.